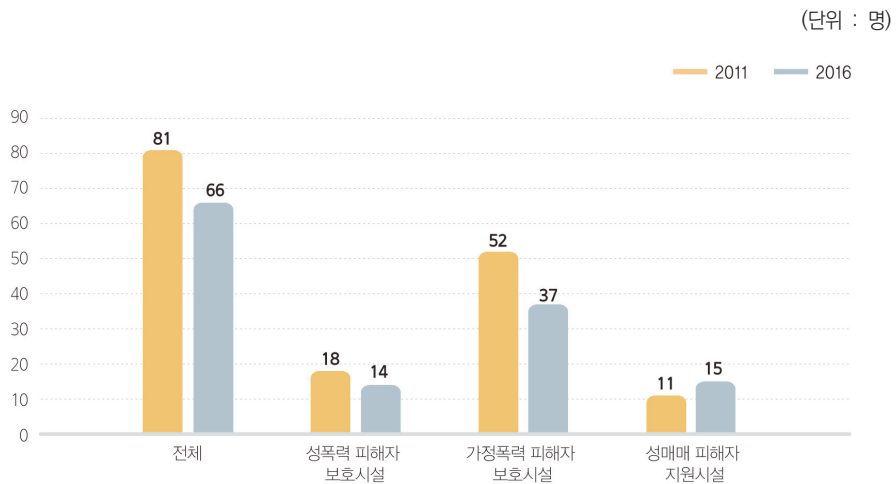


■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

- 울산광역시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총 9,033명에서 이후 감소하다 2014년 총 7,873명으로 최저점을 보인 후 2016년 총 9,552명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여성비율은 2011년 55.8%에서 점점 감소하다 2016년 54%로 나타남.

3) 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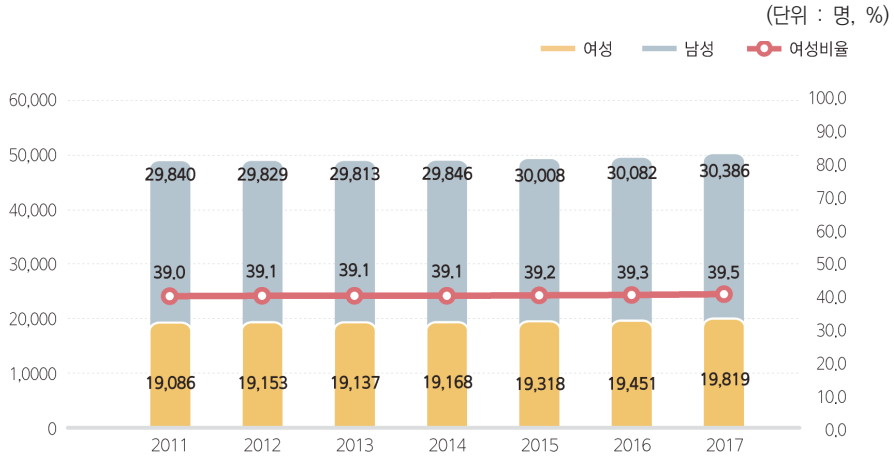
〈그림Ⅶ-4〉 여성복지시설 입소 인원



자료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내 여성복지시설 입소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81명에서 2016년 66명으로 줄어들었음.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2011년 52명이었으며, 2016년에 3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11년 18명에서 2016년 14명으로 줄어들었음. 하지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2011년 11명에서 2016년 15명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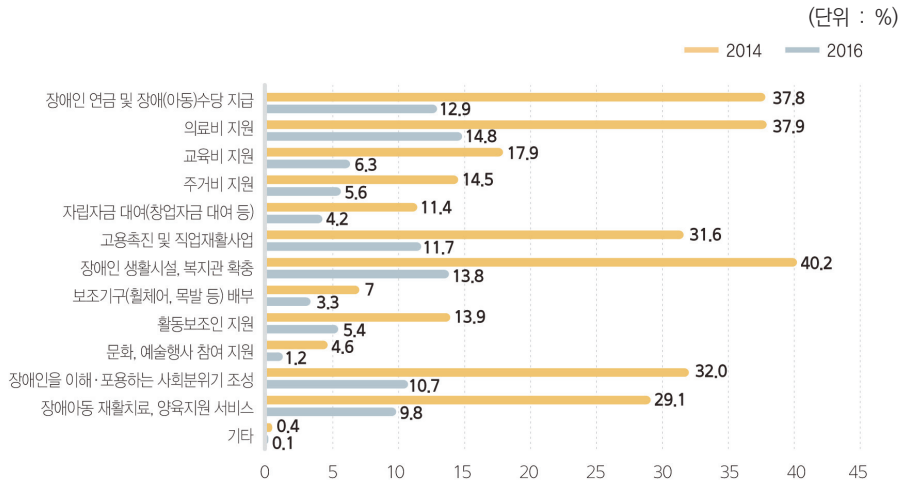
〈그림Ⅶ-5〉 성별 등록 장애인 수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등록현황」, 성인지통계시스템.

- 울산광역시 내 등록 장애인은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이며, 등록장애인 중 여성등록장애인은 2011년 19,086명, 39%에서 2017년 19,819명, 39.5%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큰 변화가 없는 편임.

〈그림Ⅶ-6〉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



주 : 2014년은 중복응답임.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 사회조사」.

■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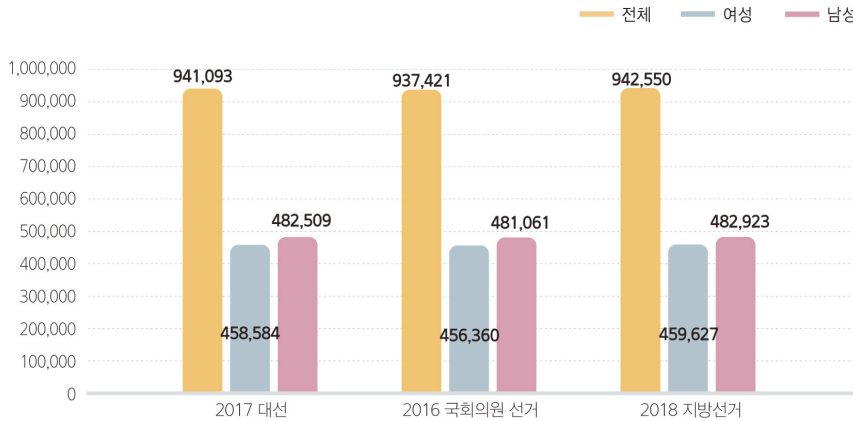
- 15세 이상 울산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4년(중복응답)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관 확충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지원이 37.9%로 나타남. 한편 2016년에는 의료비지원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관 확충이 13.8%로 나타남. 2014년과 2016년 응답한 비율은 달랐으나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관확충,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8. 정치 및 사회참여

1) 정치참여

〈그림Ⅷ-1〉 성별 유권자 수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성인지통계시스템.

-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울산광역시민의 투표율은 2018년 기준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7년 대선의 경우 여성유권자는 458,584명이었으며 2016년 국회의원선거 여성 유권자는 456,360명, 2018년 지방선거는 459,627명으로 나타남.